



한우고기 수출 동향

The Half-yearly Review of Hanwoo Export Information

-홍콩시장을 중심으로-

Focused on Hongkong Market

2019년 3. 4분기

목 차

I. 조사 개요	1
II. 홍콩 경제 동향	2
III. 홍콩 정치 동향	6
IV. 홍콩 소비 트렌드	8
V. 홍콩 쇠고기 시장 현황	13
VI. 홍콩內 주요국 쇠고기 언론보도 현황	18
[참고]대(對)홍콩 검역 제도.....	22

I.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한우고기 수출국에 대한 경제, 정치, 트렌드, 쇠고기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한우고기 수출 확대 도모

□ 조사 필요성

- 한우고기 수출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한우고기 수출과 관련된 수출 상대국의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수출사에서 한우고기 수출동향 정보를 참고하여 수출 부위 선택, 사전적 수출량 조정, 수출 계획 수립 등에 이용

□ 조사 기준(2019년 3, 4분기)

- 통계 자료 : 2019년 7월 1일 ~ 11월 30일
- 보도 기사 : 2019년 8월 1일 ~ 12월 02일

□ 조사 내용

- 홍콩 경제 동향
- 홍콩 정치 동향
- 홍콩 소비 트렌드
- 홍콩 쇠고기시장 동향
- 홍콩內 주요국 쇠고기 언론보도 현황
- 홍콩 검역 제도 등

□ 참고 자료

- 홍콩통계청(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aT)
- 2019년 홍콩 경제 전망(Kotra)
- KOTRA 해외시장 뉴스 등
- 한국무역협회(KITA)
- 홍콩 현지 주요 일간지 등

II. 홍콩 경제 동향

□ 최근 홍콩 경제 동향

- 2019년 3분기 홍콩의 실질 GDP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2.9%를 기록하여 둔화세가 지속됨 <표 2-1>.
-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아시아 지역 교역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해외 수요가 감소했으며, 홍콩 내 수요도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위축됨 <그림 2-1>.
- 한편, 2019년 2분기 성장률부터 전기 대비 -0.5%로 2019년 1분기(+1.3%)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2019년 3분기 성장률 역시 전기 대비 -3.2%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표 2-1> 홍콩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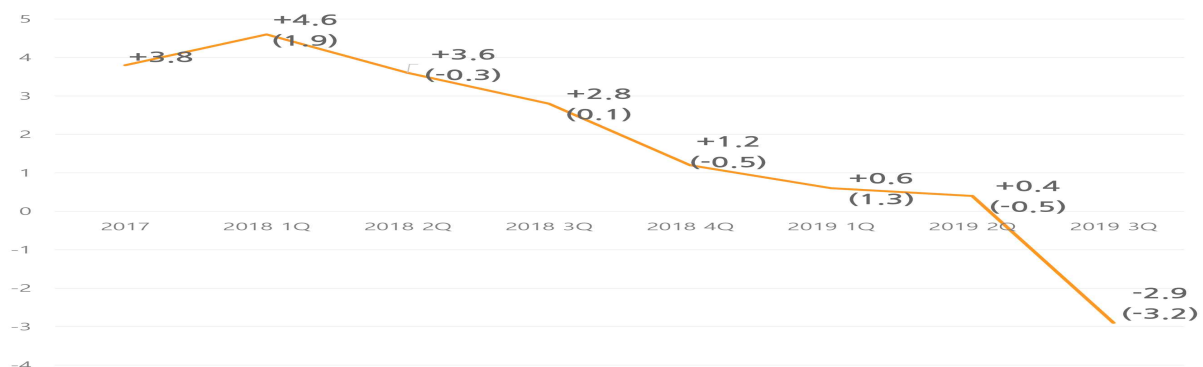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 대비)

	2018년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3.0	0.6	0.4	-2.9
민간소비지출	5.5	0.4	1.3	-3.4
소비자물가상승률	2.4	2.2	3.0	3.3
상품수출	3.6	-3.7	-5.4	-7.1
상품수입	4.9	-4.2	-6.7	-11.2

출처: 홍콩통계청

<그림 2-1> 실질 GDP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전기대비))



출처: 홍콩통계청

□ 홍콩 수출입 전망

- 2015년 이후, 상품 무역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함 <그림 2-2>.
 - 상품 총 수출 지표 : 2017년 8.0% → 2018년 7.3% → 2019년 1~10월 -5.1%
 - 상품 총 수입 지표 : 2017년 8.7% → 2018년 8.4% → 2019년 1~10월 -7.0%
-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상품 수출 감소폭이 확대됨.
 - 대중국 수출 지표 : 2019년 1분기 -8.9% → 2019년 2분기 -7.7% → 2019년 3분기 -7.2%
 - 대미(對美) 수출 지표 : 2019년 1분기 -9.9% → 2019년 2분기 -14.4% → 2019년 3분기 -15.3%
- 지난 11월 26일에 홍콩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대외 상품 거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홍콩의 총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9.2%와 -11.5% 감소함.
- 수입금액도 전체적으로 축소되었으며 한국(-25.1%), 인도(-19.2%), 말레이시아(-14.2%), 태국(-9.9%), 싱가포르(-8.5%)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수출도 운송서비스 및 사업·기타서비스 부진과 여행서비스 성장세 둔화로 인해 감소됨.
 - 서비스 수출 지수 : 2019년 1분기 0.8% → 2019년 2분기 -1.1% → 2019년 3분기 -13.8%)

<그림 2-2> 상품 무역 성장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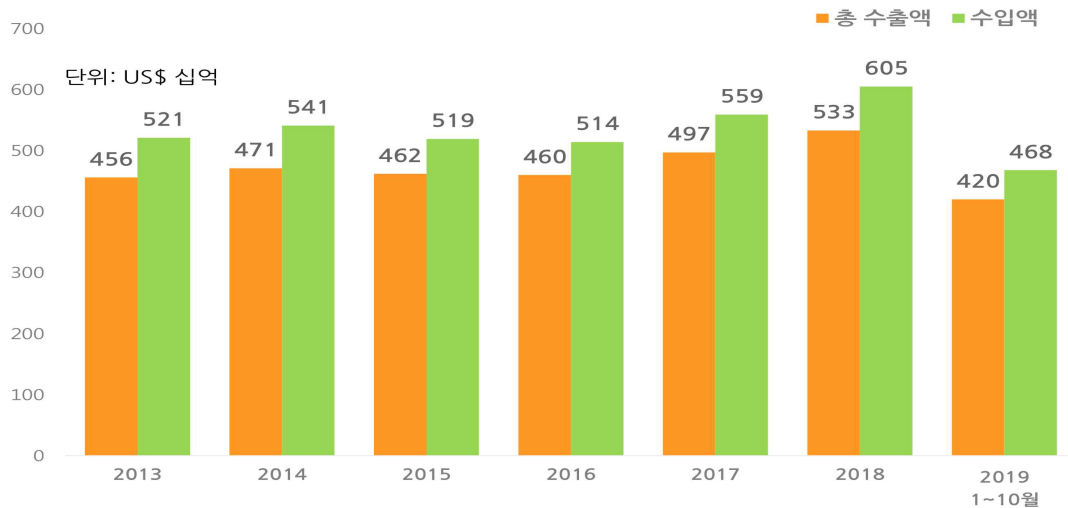
출처: 홍콩통계청

○ 2016년 이후, 상품 무역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 1~10월에 급격히 감소함 <그림 2-3>.

- 상품 총 수출액 : 2017년 4,970억 → 2018년 5,330억 → 2019년 1~10월 4,200억

- 상품 총 수입액 : 2017년 5,590억 → 2018년 6,050억 → 2019년 1~10월 4,680억

<그림 2-3> 상품 무역액



출처: 홍콩통계청

□ 홍콩 경제 전망

○ 홍콩 정부는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제시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홍콩 정부는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상업용 차량 연료 보조금, 여행 가이드 현금 보조금,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중소기업 공과금 면제 등 총 210억 홍콩달러(약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40억 홍콩달러(약 6,100억 원) 규모의 4차 경기 부양책¹⁾을 발표함.

○ 그동안 홍콩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들로 인해 GDP 2% 증가 효과를 창출하여, 시위로 인한 GDP 2%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홍콩 정부는 중국 돼지 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값 폭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9%로 상향 조정함.

1) 개인 및 기업은 세금을 분할 방식으로 납부, 각종 과태료의 면제 등. 중소기업은 상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임대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등.

□ 홍콩 시위의 경제적 영향

- 홍콩 정부는 2019년 4월 3일, 찬통카이(陳同佳) 사건을 계기로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했고,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하며 홍콩사태가 발발함.
- 홍콩 시위로 인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의 외국인 관광객 고객 수는 30%에서 최대 50% 감소하였으며, 관광객의 주요 구매 품목인 보석류는 -17.1%, 전자제품 매출은 -16.1% 감소함. 스위스시계의 홍콩 수출은 시위 이전 시점인 6월에 이미 -27% 감소함.
- 홍콩 내 증시는 7월 초~8월 중순까지 6000억 달러 이상 증발하였으며, 같은 기간 홍콩 항셱지수(HSCEI)는 -10% 이상 급락함.
- 런던의 글로벌 송금서비스 업체인 TransferWise는 8월 들어 홍콩으로 1달러가 들어오는 동안 2.64달러가 빠져나가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2.5배를 넘어섰다고 밝힘.
-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였던 홍콩 이공대를 진압하면서 전체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2월 8일 대규모 집회가 다시 열리면서 향후 진행 방향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음.
- 시위 사태와 함께 미-중 무역마찰로 인해 홍콩 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관광객이 급감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마이너스 성장으로, 15년 만에 재정적자가 예상됨.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한 손실이 홍콩 GDP의 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금융, 부동산과 함께 관광, 유통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10월 홍콩 방문객은 331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3.7% 급감하였음. 홍콩 방문객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본토 방문객이 50% 넘게 축소된 것이 가장 큰 영향임.
- 실업률도 3.1%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요식업종은 실업률이 6.1%에 달하고 있으며 문을 닫는 식당은 300여 곳이 넘어섰고 종업원 실직도 1만 2,000여 명을 기록함.
- 홍콩 정부는 최근 40억 홍콩 달러(약 6,100억 원)에 달하는 4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임.

참고자료

홍콩 통계청(<https://tradeids.censtatd.gov.hk>)

KOTRA 해외시장 뉴스(2019.08.23.)

홍콩특별자치구 「Half-yearly Economic Report 2019」 (2019.08)

홍콩특별자치구 「Third-Quarter Economic Report 2019」 (2019.11)

Ⅲ. 홍콩 정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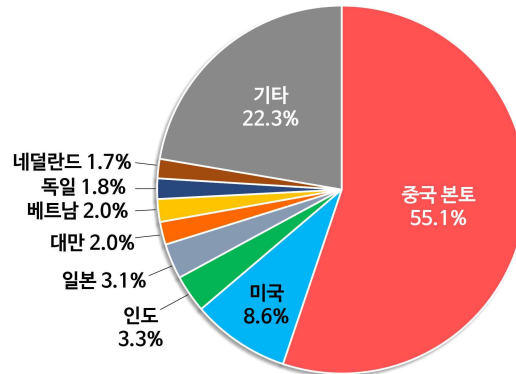
□ 최근 홍콩 정치 동향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로 정부와 홍콩 시민 간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졌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 최근 발생한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Extraditionbil)' 반대 시위는 정치적/경제적 반(反) 중국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임.
- 11월 24일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71%라는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함. 전체 452석 중 392석을 차지하며 범민주파가 압도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는 상황임. 12월 8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기능과 중국 수출입 경유지의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당장 안정화가 쉽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룸.

□ 홍콩-중국 무역 현황

- 홍콩 전체 교역 중 대중국 거래가 50.4%를 차지하며, 홍콩의 재수출 중 중국의 비중도 55.1%(2018년)를 차지함 <그림 3-1>.
- 홍콩의 수출은 대중국 및 미국 수출이 큰 폭 줄어들며 2018년 11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한편, 홍콩은 미국에 이은 중국의 제2 수출 지역(2018년 비중 12.2%)으로 중국의 대미 주요 수출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2,351억 달러 중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금액이 295억 달러로 12.5% 차지함.
- 미·중 양국 간 상품수지 적자 및 흑자 규모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홍콩의 재수출을 중국의 대미 수출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임.

<그림 3-1> 홍콩 재수출 대상국 현황 (2018년)



출처: 홍콩무역산업부

□ 홍콩-중국 경제 전망

- 홍콩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에 더하여 시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세가 상당 폭 위축될 전망이다.
- 특히, 중국·홍콩 간 관계 악화는 홍콩 관광업 및 소매업을 중심으로 홍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을 경유하는 중국 관련 투자가 급감할 여지가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 허브로 기능하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홍콩의 불안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시위에 따른 평가 및 시사점

-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악화는 이들 지역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홍콩의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무역, 투자 등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여타 주요국에 비해 높아 홍콩-본토 간 긴장 격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2019.08.26)

KOTRA 해외시장 뉴스(2019.09.20.) / 한국은행(2019.10.06.)

IV. 홍콩 소비 트렌드

□ 홍콩인의 입맛 탐구, 홍콩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 최근 홍콩에서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 SNS, 여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이 홍콩에 알려지는 시간도 단축되었음.
- 홍콩 전문가에 따르면, 약간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약 50%, 한국 사람처럼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25%,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사람은 25%정도임.
- 지리적인 인접성과 한류의 영향으로 홍콩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있는데 한국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한류 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한국 요리를 즐기고 있음.
- 홍콩의 한국 식당에서 현지인들이 즐기는 음식으로는 돌솥비빔밥, 잡채, 삼계탕, 후라이드 치킨 등이 있음.
- 한국을 방문한 홍콩 관광객들은 한우를 즐겨 먹으며, 춘천 닭갈비, 안동찜닭, 돼지국밥, 흑돼지 삼겹살, 간장게장 등도 인기 있음.



돌솥비빔밥
(Bib N Hops)



한국식 BBQ
(HanGaRam)



김밥
(Kelly's Cape Bop)

출처: 농식품 수출 정보 (괄호는 식당 명)

□ 딜리버리 앱 문화 확산

- 1인 가구 증가와 시위로 인한 위험성까지 더해져 택배시장과 전자상거래를 넘어 배달 앱 (Delivery-App)이 경기 침체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음.

- 배달 서비스를 받는 것은 이제 홍콩에서도 흔한 일이지만, 중의학 약재음료 같은 건강음료 경우에도 모바일 딜리버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습득과 맞춤주문, 배송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시스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홍콩 사람들은 음식 종류와 위치로 나누어 편리하게 레스토랑을 검색하기 위해 'Open rice' 어플리케이션을 즐겨 사용함. Open rice는 유저들이 남긴 레스토랑에 대한 후기와 평점을 제공해 다른 유저들이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함.
- 다양한 딜리버리 콜라보레이션, 연계전략 주효
 - Foodpanda는 Openrice와 협력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고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함.
 -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끼리 협력해 소비자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
- 홍콩 음식 배달 시장 지속적인 성장 기대
 - 홍콩의 좁은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음식 시장은 B2C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B2B 플랫폼으로 다양하게 진화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Deliveroo와 Foodpanda가 홍콩 음식 배달 시장을 리드하는 가운데, 최근 Uber Eats까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됨.
 - 다만,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배달되는 음식의 질, 배달 효율성, 주문된 음식이 적시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위한 인력 확보가 성패를 좌우함.

홍콩에 부는 셀프 열풍

- 홍콩은 2005년 이후로 토지(土地) 개발이 거의 멈춘 상태이며, 홍콩의 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타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음.
- 개인 공간이 협소한 홍콩 주거 환경
 - 좁은 생활공간으로 인해 많은 홍콩 시민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여가 활동도 주로 야외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협소한 공간의 나노 플랫 (Nano Flat: 초소형 아파트를 일컫는 말로, 보통 161제곱피트(약 15평방 미터) 미만의 집을 나노 플랫으로 통칭)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음.

○ 생활공간 부족으로 떠오르는 셀프 베이킹 스튜디오

- 인솔자 없이 스스로 베이킹하여 다양한 제과류를 만드는 장소인 셀프 베이킹 스튜디오가 최근 홍콩에서 여가활동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음.
- ‘Home 焙小日子’ (홈 퓨이 슈얏지)는 대만의 셀프 베이킹 스튜디오. 좁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 홍콩 주방에 베이킹 환경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에 착안하여 2018년 라이치콧(荔枝角)에 위치한 쇼핑몰 안에 총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진출하였음.



Home 焙小日子 (홈 퓨이 슈얏지) 라이치콧점

출처: HKET, AM730

- 1~2인 가구가 많아지는 가운데 주거 환경도 점차 좁아져서 소형 가전제품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음. 많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구입 시 사이즈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품질과 기능은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만족감을 느끼며 품질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는 셀프 열풍이 불고 있음. 바쁜 일상으로 인해 미리 준비된 간편 조리 식품을 많이 찾는 추세임.
- 주요 재료를 분량대로 포장하여 고객은 따로 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쉽게 디저트를 만들 수 있으며, 재료가 적정량만 포장되어 있어서 남은 재료를 따로 저장하거나 버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음.



Instant Food

출처: MUJI, 無印良品

□ 홍콩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시장 트렌드

- 맛별이 비율이 높은 홍콩의 소비자들은 근무 시간이 긴 편으로 음식 준비가 간단하고 요리가 간편한 육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영양가 있는 간식을 찾고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긴 편으로 이동 중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육포와 같은 육류 가공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홍콩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로 인한 구매력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해외 생활 및 홍콩 내 서양 음식점의 증가, 서양 음식에 개방적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스테이크용 프리미엄 육류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로 인해 수입 식품의 선택 시 품질과 안전이 우선 요소가 되었으며, 소비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함.
-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 소비자들은 점점 더 건강하고 맛있는 고품질 육류를 선호함. 한우에 대한 마케팅도 원산지 또는 육류 등급(1++)에 관한 정보는 기본이며, 외국인의 관점에서 고가를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셀링 포인트(예/ 목초 사료, 무 항생제, 유기농)와 함께 프리미엄화가 필요함 <표 4-1>.

<표 4-1> 홍콩 소비자 특징을 고려한 진출 전략

고려요소	특징	포지셔닝	제품 포장
바쁜 생활 습관	바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조리 시간을 단축시켜줄 제품을 선호함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식품의 소비 증가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바로 사용 가능한 용기에 담긴 제품
신뢰도	믿을 만한 사육장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제품 품질이 관리된 육류로 보존제, 향생제 또는 기타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제품	클린 라벨링 국제식품 기준에 적합한 제품	식품의 교차 오염의 기회를 차단하고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의 포장
웰빙	가공 과정에서 본연의 영양학적 가치 손실 최소화, 지방 함량을 줄이고 양념 시 지방, 나트륨, 당의 함량을 줄인 제품	지방, 나트륨, 당의 함량을 줄인 제품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강 음식 특징을 분명히 명시한 포장
프리미엄화	기존의 육류 제품에서 이국적인 맛을 더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의 고품질 육류를 사용하여 프리미엄을 원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	프리미엄 육류는 제품의 품질과 맛을 강조하고 프리미엄 원료에 소스 및 향신료를 활용하여 양념한 제품	작은 용량과 짙은 색의 두꺼운 포장재 제품은 소비자에게 고급 이미지를 제공함
문화적, 종교적, 윤리적 특징	육류제품은 다양한 건강 문제뿐 아니라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필요함. 생산 공정의 투명화는 신뢰 구축의 핵심 요소임	제품은 주 고객층을 타깃으로 출시해야하지만, 틈새시장의 트렌드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됨	제품 포장에 원산지, 생산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함. 이는 종교적 요구사항의 경우 특히 중요함

출처: Global Data, 「Top Growth Opportunities: Meat in Hong Kong」

참고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2019.09.06./2019.10.17.)
농식품 수출 정보(2019.09.19./2019.10.18.)

V. 홍콩 쇠고기 시장 현황

□ 국가별 쇠고기 수입 현황

○ Boneless(뼈 없는 것) 기준

- 2019년 7~10월 홍콩의 뼈 없는 쇠고기(Boneless)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수입액은 11%, 수입량은 15% 감소하였음 <표 5-1>, <표 5-2>.
- 2019년 7~10월 홍콩내 전체 수입액은 2분기와 비교하여 9% 증가하였고, 수입량은 10% 증가하였음 <표 5-1>.
- 2019년 7~10월 한국으로부터 19톤(HK 8.8M\$)의 쇠고기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금액 29%, 중량 12%가 증가한 수치임 <표 5-2>.

<표 5-1> 홍콩 쇠고기(Boneless) 수입액(HK Million\$)

구분	2018년	2019년		b/c (%)	a/c (%)
	7-10월(a)	2분기(b)	7-10월(c)		
한국	7	5	9	80%	29%
일본	52	54	61	13%	17%
호주	146	112	135	21%	-8%
미국	149	118	107	-9%	-28%
영국	1	1	3	2%	2%
총 합계	355	290	315	9%	-11%

출처 : 홍콩 통계청(소수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표 5-2> 홍콩 쇠고기(Boneless) 수입량(톤)

구분	2018년	2019년		b/c (%)	a/c (%)
	7-10월(a)	2분기(b)	7-10월(c)		
한국	17	12	19	58%	12%
일본	128	130	152	17%	19%
호주	1,270	930	1,142	23%	-10%
미국	964	764	698	-9%	-28%
영국	19	17	25	47%	32%
총 합계	2,398	1,853	2,036	10%	-15%

출처 : 홍콩 통계청(소수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 2019년 7~10월 주요 국가별 쇠고기 수입단가를 보면 한국이 470HK\$/kg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408HK\$/kg, 미국 154HK\$/kg 순으로 조사됨. 영국은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
- 특히, 한국은 2분기에 비해 2019년 7~10월에 가격이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7% 상승하며 꾸준히 단위당 금액이 상승하고 있음 <표 5-3>.

<표 5-3> 주요 국가별 쇠고기 수입단가(HK\$/Kg)

구분	'18. 7-10월 (a)	'19. 2분기	'19. 7-10월 (c)	a/c
한국	441	436	470	7%
일본	410	417	408	-0.5%
호주	115	121	119	3%
미국	155	155	154	-1%
영국	91	61	122	34%

출처 : 홍콩 통계청(소수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 Bone(뼈 있는 것) 기준

- 2019년 7~10월 홍콩의 뼈 있는 쇠고기(Bone) 수입은 전년대비 수입액 125%, 수입량 178%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호주와 영국의 성장이 두드러짐 <표 5-4>, <표 5-5>.
- 한국의 경우, 1월 이후로 뼈있는 쇠고기 수입이 없었지만, 9월에 한 차례 수입되었음.

<표 5-4> 홍콩 쇠고기(Bone) 수입액(HK Thousand\$)

구분	2018년	2019년		b/c (%)	a/c (%)
	7-10월(a)	2분기(b)	7-10월(c)		
한국	46	0	37	-	-20%
일본	0	129	264	105%	-
호주	5,223	7,233	20,218	180%	287%
미국	7,990	6,563	9,060	38%	13%
영국	176	367	645	76%	266%
총 합계	13,435	14,292	30,224	111%	125%

출처 : 홍콩 통계청(소수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표 5-5> 홍콩 쇠고기(Bone) 수입량(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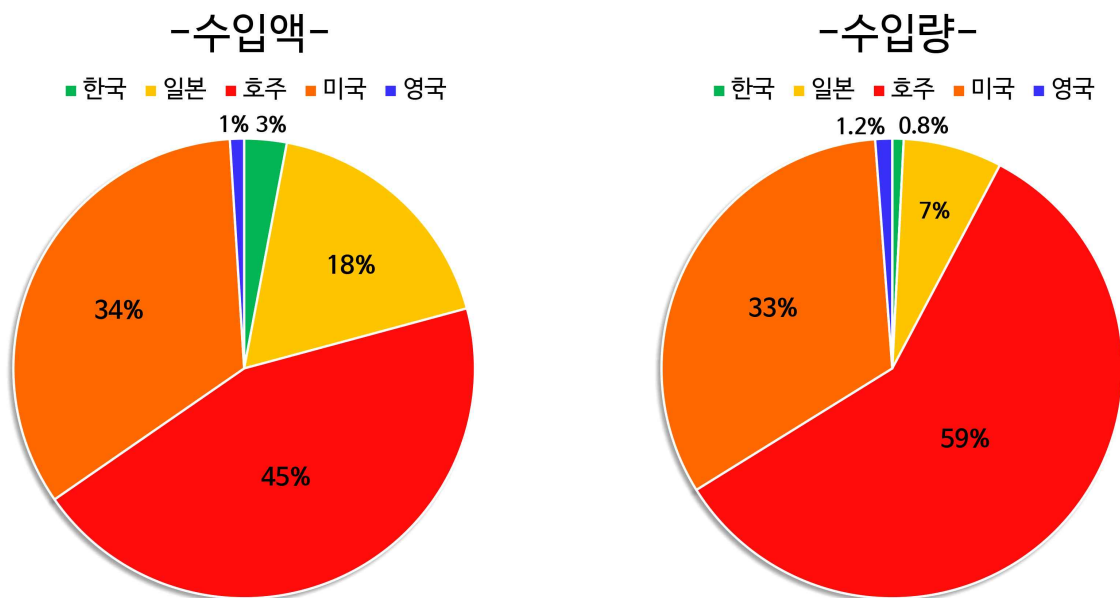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b/c (%)	a/c (%)
	7-10월(a)	2분기(b)	7-10월(c)		
한국	156	-	68	-	-56%
일본	-	557	1,683	202%	-
호주	43,494	70,152	212,192	202%	388%
미국	54,630	44,298	58,088	31%	6%
영국	846	2,350	3,651	55%	332%
총 합계	99,126	117,357	275,682	135%	178%

출처 : 홍콩 통계청(소수점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 국가별 쇠고기 수입 비중

- 수입액 기준으로 호주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34%, 일본 18%, 한국 3%, 영국 1% 순으로 조사됨 <그림 5-1>.
- 수입량의 경우 호주 59%, 미국 33%, 일본 7%, 영국 1.2%, 한국 0.8% 순으로 조사됨 <그림 5-1>.

<그림 5-1> 주요 국가 쇠고기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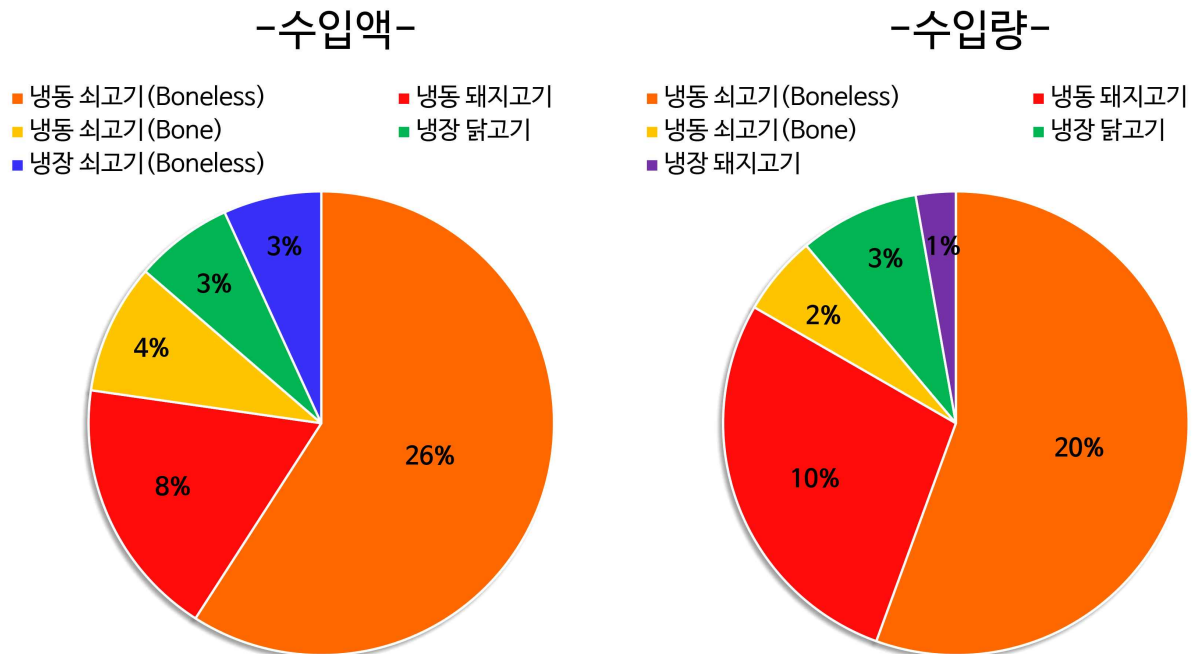


출처 : 홍콩 통계청

□ 육류 수입 현황

- 홍콩인들은 육류 수입에 있어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함. 그 외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 2019년 7~10월 기준(수입량, 수입액)으로 냉동 쇠고기(Boneless)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냉동 돼지고기가 그 뒤를 이었음. 이 외에는 수입액과 수입량별로 순위 품목이 다름 <그림 5-2>.
-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역시 홍콩 내 대부분의 육류는 신선 및 냉장보다는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2>.
- 2019년 7~10월 기준 냉장 쇠고기(Bone) 수입액은 3,400만 달러(HKD)로 전체 약 0.2%를 차지하였으며, 수입량은 319톤으로 전체 약 0.08%를 차지함.
- 2019년 7~10월 기준 냉동 쇠고기(Boneless) 수입액은 4억300만 달러(HKD)로 전체 약 3%를 차지하였으며, 수입량은 3,359톤으로 전체 약 0.9%를 차지함.

<그림 5-2> 2019년 7~10월 상위 5개 육류 수입 현황



출처 : 홍콩 통계청

□ 소비자 가격 현황(2019.9.3 기준)

○ A마트

- Rib Eye의 경우, 한우브랜드 A HK\$235, 일본와규 HK\$230, 호주와규 HK\$166에 판매되고 있음.
- Striploin의 경우, 한우브랜드 A HK\$235, 일본와규 HK\$230, 미국산 HK\$103에 판매되고 있음.

구분 (HK\$/100g)	한우브랜드 A	일본 와규	호주산	호주 와규	미국산
Rib Eye	235	230	62	166	101
Tenderloin	-	-	99	-	-
Striploin	235	230	-	-	103

○ B마트

- Rib Eye의 경우, 한우브랜드 B HK\$145, 일본와규 HK\$145, 호주산 HK\$68에 판매되고 있음.
- Tenderloin의 경우, 미국산이 HK\$89에 판매되고 있음.
- Striploin의 경우, 한우브랜드 B HK\$145, 일본와규 HK\$145, 호주산 HK\$68에 판매되고 있음.

구분 (HK\$/100g)	한우브랜드 B	일본와규	호주산	미국산
Rib Eye	145	145	68	75
Tenderloin	-	-	-	89
Striploin	145	145	68	54

○ C마트

- Chuck Roll의 경우, 한우브랜드 C HK\$189, 일본와규 HK\$165에 판매되고 있음.
- Striploin의 경우, 한우브랜드 C HK\$195, 일본와규 HK\$286, 호주와규 HK\$69에 판매되고 있음.
- Striploin for Shabu의 경우, 한우브랜드 C HK\$231.80에 판매되고 있음.

구분 (HK\$/100g)	한우브랜드 C	일본와규	호주와규	미국산
Rib Eye	-	286	-	75
Chuck Roll	189	165	-	-
Striploin	195	286	69	75
Striploin for Shabu	231.80	-	-	-

참고자료

홍콩통계청(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소비자가격의 경우, 홍콩 현지 직접 조사(2019.09.03)

VI. 홍콩內 주요국 쇠고기 언론보도 현황

1. 미국 - [중-미 무역] 홍콩 경유 환적물, 미 농산물 수출량 6% 감소

○ HKET는 8월 13일 보도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농산물에 대해 중국이 작년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농산물도 6% 감소되었다고 보도함.

○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홍콩의 가장 큰 쇠고기 공급자로 건재함.

[번역본] 지난해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해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홍콩 주재 미국 농산무역처 농업참사관인 Alicia Hernandez는 지난해 미국 농산물의 홍콩 수출이 연 6% 감소했다며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미국 농산물의 하락세를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홍콩에 직접 수출하는 미국 농산물의 홍콩 수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홍콩에서 가장 큰 쇠고기 공급자, 세 번째로 큰 와인 공급업자, 바닷가재의 주요 공급업자, 가장 큰 딸기 공급업자이다. 홍콩 사람들이 미국 식재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올해는 델리셔스 USA 푸드 페스티벌 개최, 칸주아 식당과 제휴를 통한 다양한 미국 식재료를 홍콩에 알릴 계획이다.

2. 미국 - 인공 고기(식물 쇠고기)로 홍콩/마카오 시장 공략

○ 2016년, 미국의 Impossible Foods는 인공 고기를 개발한데 이어 2018년 홍콩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해 좋은 시장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홍콩 현지 식당의 육류 가격으로 인해 성장은 지지부진하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지 요리 양식에 접목하는 등의 지속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8월 19일 HK01이 보도함.

○ 아시아는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의 44%를 차지하며, 중국 내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선정함.

[번역본] Impossible Foods의 Nick Halla는 현재 식물 쇠고기가 홍콩, 마카오 미국 및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해 약 1만 5700개 식당이 제품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시아 육류 소비량이 전 세계 44%에 달해 중국 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라고 소개했다. Halla는 홍콩시장에서의 식물 쇠고기의 선전에 대해 현지 호텔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과의 합작으로 식물 쇠고기를 출시하는 등 시장 반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콩 식당의 육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물론, 식물 쇠고기를 현지 요리 양식에 접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HKET, 2019.08.13.
HK01, 2019.08.19.

3. 미국 - 홍콩 세관은 중국 본토로 향하는 5천만 달러어치 밀수입 냉동육 압수.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

- 지난 11월 29일, South China Morning Post는 탈세 조직이 미-중 무역전쟁 때 부과된 것을 포함하여 관세를 회피하려 했음을 보도함.
- 심지어 소고기는 냉장되지 않았고, 건강 및 안전 검사를 회피했으며, 선내 위생 상태는 '나쁨' 수준이었음.

[번역본] 범죄자들은 불법 쇠고기와 찌꺼기를 도시에서 중국 남동부의 해안 지방인 광둥으로 운송함으로써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부과되는 관세를 포함한 본토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다.

미국, 캐나다, 남미 등지에서 온 무단 적재 물품의 밀수에 성공했다면 위탁 가격이 1억 달러로 두 배 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법 집행 관계자는 "그들의 밀수 작전은 고율의 본토 관세와 위생 감시 조치와 같은 엄격한 수입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 본토 당국이 냉동육에 70%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양국 간 무역전쟁에 따라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가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집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압수 한 것의 1.3 배에 달한다고 Wong은 덧붙였다.

4. 호주 - 호주 역사상 최악의 가뭄, 식품 가격 급상승

- 지난 10월 24일 BASTILLE POST가 호주의 가뭄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 및 쇠고기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함.
- 가뭄으로 인해 호주의 소 개체 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가격은 5.7% 상승함.

[번역본] 호주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과 적색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의 양고기 가격은 1년 만에 13.5% 급등했고, 빵 가격은 5% 올랐으며, 쇠고기 가격은 5.7% 올랐다. 금융 전문기관인 Rabobank는 가뭄으로 호주 소의 개체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동물성 단백질 분석가인 Angus Gidley Baird는 현재로서는 가뭄이 해소된다고 해도 쇠고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11.29.
BASTILLE POST, 2019.10.24.

5. 호주 - 홍콩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디너, 레스토랑 10선 소개

- 지난 12월 02일 홍콩 프레스티지가 홍콩 8½ Otto e Mezzo BOMBANA 레스토랑에서 12월 24일 하루 크리스마스 디너를 선보인다고 보도함.
- 호주에서 기른 마유라 쇠고기 서로인 스테이크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은 크리스마스 디너의 대표 메뉴라고 전함.

[번역본] 미슐랭에서 3 스타를 받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하루 동안 스페셜 8코스 메뉴를 제공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메뉴로는 8½ Otto e Mezzo BOMBANA의 시그니처인 세련된 코스 요리가 있으며, 향긋한 화이트 알바 트러플을 곁들인 체스트넛 뇨끼,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폴라드,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시리즈'로 자리 잡은 호주의 마유라 쇠고기 서로인 스테이크와 산딸기 소스를 곁들인 판나코타, 모스카토 자바이요네, 오렌지 요거트 젤라토 등이 있다.

6. 일본 - 일본미식박람회 개최

- 지난 8월 17일 경제일보는 일본무역진흥기관(JETRO)이 일본 농림수산물의 홍보활동을 위해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19 홍콩 무역개발국 미식 박람회'의 무역관 내 일본관을 개장했다고 보도함.
- JETRO는 미식 박람회에 9년 연속 참가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조미료, 해산물 등 일본의 고급 식재료를 홍보하고 있음.

[번역본] 2019년 8월 16일, 일본무역진흥기관(JETRO)은 일본 농림수산물 홍보활동을 위해 3일 간 (8월 15일 - 17일) 열리는 '2019 홍콩 무역개발국 미식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농수산물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전시회다. JETRO는 올해로 9년째 이번 행사에 참가하고 있으며 92개의 일본 기업들과 함께했다. 일본 고급 식재료인 쇠고기, 돼지고기, 조미료, 해산물을 이용하여 관객의 눈앞에서 음식과 디저트를 선보이는 개막 행사가 인상적이었다. 그 중 JFOODO는 2017~2018년 행사에서 도미와 방어 및 가리비 등 세 가지 고급 식재료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향후 일본 술과 포도주, 쇠고기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7. 일본 - 일식 레스토랑 井井屋, 홋카이도 로스트 비프 선보여

- 지난 9월 3일 Sky Post는 홍콩의 일식 레스토랑 ‘井井屋’이 홋카이도에서 엄선한 쇠고기로 요리한 홋카이도 로스트 비프 두 종류와 홋카이도 비프 스시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보도함.
- 일본 산리오(Sanrio)의 인기 캐릭터 구데타마(Gudetama)로 장식하여 귀여움을 자아냄.

[번역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 Golden Lion의 로스트 비프 두 종류를 소개한다. 일본식 달걀 노른자를 곁들인 홋카이도 로스트 비프 (단품 HK\$168, 세트 HK\$185)는 홋카이도에서 엄선한 쇠고기를 굽고 천천히 끓인 후 육즙을 가두어 더욱 연하게 유지하며, 얇게 썬 달걀은 고추기름을 넣어 더 맛있게 만든다. 성계를 곁들인 홋카이도 로스트 비프 (단품 HK\$228, 세트 HK\$245)는 진하고 감미로운 성계와 어우러져 별미이다. 신메뉴에는 홋카이도 쇠고기 스시 (HK\$68/3조각)도 있으며, 스시는 Golden Lion만의 홋카이도 와사비 곤포 간장과 함께 제공된다. 井井屋는 또한, 산리오(Sanrio)의 인기 캐릭터를 사용하여, Kwun Tong apm 상점을 구데타마(Gudetama)를 테마로 귀엽게 꾸몄다.

8. 일본 - 가짜 일본 고베 쇠고기 막기 위해 DNA 검사 실시

- 지난 9월 27일 South China Morning Post가 고베 쇠고기 농가의 명성과 생계 보호를 위해 내달 소의 건본 DNA 채취와 저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함.
- 협회는 일본 흑우의 타지마 변종으로부터 나온 와규만을 고베 쇠고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들은 사전에 등록된 도축장에서 처리되어야 함.

[번역본] 고베 쇠고기 마케팅 및 유통 촉진 협회는 쇠고기 농가의 명성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이 기관에 등록된 소의 건본 채취와 저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베 소가 도살될 때 고베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진짜 고베 쇠고기임을 인증할 것이다. 협회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다.

이 협회는 효고현 농장에서 사육되는 일본 흑우의 타지마 변종으로부터 나온 와규만을 고베 쇠고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소들은 전통적으로 곡물 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농부들은 소에게 매일 마사지와 맥주 양동이를 주는 등 쇠고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소는 협회의 등록된 도축장 중 한 곳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참고] 대(對)홍콩 검역 제도

- 수입 육류·가금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육류·가금류를 수입하기 전 식품환경 위생부의 사전허가 필요함.
- 허가를 받기 위해 수입업체는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엽수류·육류·가금류는 원산지과 관련한 식품당국(food authority)이 발급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는 식품환경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에서 발급받은 사전서면허가증(prior written permission)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함.
-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 식품청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환경위생부의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을 시,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 수입이 불가함.
-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인증서가 있는 경우 육류·가금류 수입은 식품 환경위생부의 사전 허가는 필요치 않음.

< 홍콩의 수입 검역이 까다로운 항목 >

위험 약물 (Dangerous Drugs)		화학물 (Controlled Chemicals)		의약품 (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ines)	
중국산 한약 (Chinese Herbal Medicines and Proprietary Chinese Medicines)		가축 (Live Animals)		식물과 식물해충 (Plants & Plant Pests)	
쌀,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육 (Rice, Frozen or Chilled Meat and Poultry)		엽수류 (Game)		기타 금지품목 (Other Prohibited Goods)	

출처: 홍콩 세관



한우고기 수출 동향 2019년 3,4분기

The Half-yearly Review of Hanwoo Export Information

발 행 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기획·편집 : BRANDFUTURE

발 행 일 : 2019년 12월 2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커피아회관 2,3층

연 락 처 : 02-522-3606

이 메 일 : hanwoolove@daum.net

홈페이지 : <http://www.hanwooboard.or.kr>